

# 미 국무장관·의원들도 왔다... 한·미 21세기 '10년 토론'

**The JoongAng Plus**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11

1988년 말 개각으로 정부를 떠난 직후부터 91년 중순까지 2년 반 동안 외유(外遊) 아닌 제2 유학(留學)의 자세로 워싱턴DC에서 생활했다.

국제경제·금융·통상 분야 세계 최고 석학과 주요국의 전현직 최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연구소(IEE, 현 PIIIE)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었다. IIE에서는 거의 매주 새롭고 출간되는 책이나 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한다. 그리고 수시로 국제기구와 미국 등 주요국 고위 정책담당자들과 세계적 석학들을 초빙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 그리고 매주 스태프 오찬이란 형식으로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도 한다. 나는 가능한 한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브루킹스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소사이어티 워싱턴 센터, 재팬 소사이어티(뉴욕) 등 연구기관과 G7 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민간 포럼이 주관하는 회의에 연사 혹은 토론자로 자주 초청을 받았다. 세계 최고 전문가와 주요국 고위 정책담당자들의 토론과 의견교환은 물론 유용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

## 세계화 시대, 국가·기업도 왔다

자본·기업·일자리, 국경 넘나들며 국제경쟁 변화, 선제 대응해야 승리 시장경제 전환기 베트남 등에 자본

한 것은 연설문을 쓰고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91년 여름 귀국 이후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특별고문직을 95년 5월까지 연장했다. 귀국 후에는 IMF와 세계은행(WB) 요청으로 베트남의 하노이, 모로코의 라바트, 네팔의 카트만두를 방문해 그 나라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상대로 장시간 의견교환과 자문에 응한 바 있다. 92년 당시 베트남은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 초기였다. 50여 명의 정부 고위 인사들의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2시간 이상 더 길었던 기적이 난다. 귀국 후 베트남 정부로부터 각별한 사의 표시를 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4시간 길이의 비디오를 만들어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세계은행이 알렸다.

90년대 초반의 세계는 정보·통신 기술변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89년 말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미·소 간 냉전 종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 주요국들은 경제 우선 시작을 펴게 되고,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개방과 자유화 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견됐다. 또한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마무리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95년)하고 국제무역의 자유화 폭은 더욱 넓어질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



2010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의 초청 세미나에서 명예이사장인 볼커 전 연준(Fed) 의장(오른쪽)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 사공일]

그 결과 세계는 빠른 속도로 '지구촌화'되고 경제에 관한 한 사실상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를 맞게 돼 자본과 기업, 그리고 일자리가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세계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 추세를 적극 활용하는 나라와 기업만이 국제 경쟁의 승자가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세계사적 큰 변화기에 정부의 올바른 국정 어젠다 설정과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를 위해 소규모의 비영리 공익법인 형태의 세계경제연구원(IGE)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워싱턴에서 연구원 작명과 함께 현재 쓰고 있는 로고도 내가 직접 만들어 귀국했다. 귀국 직후에 정부 최고위층으로부터 특정 정부 산하기관을 맡지 않겠느냐는 의사타진을 받았다. 연구원 설립 계획을 설명하고 사양했다.

당시 국내에는 다수의 대규모 국제연구원과 민간기업 연구소가 있었다. 물론 IGE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IGE만이 할 수 있는 포럼 활동을 주력할 계획이었다.

IGE의 주 플랫폼으로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계적 명사들의 입을 통해 바깥세상의 변화를 널리 알리자는 생각이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포럼과 국제회의를 주관토록 했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개최한 서울 세계무역포럼, 삼성전자 특별후원의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푸르덴셜 생명 지원의 글로벌 금융포럼,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의 폴 케네디 교수 초청 '21세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등과 같은 특별강연회와 다양한 일반 포럼도 개최했다. 아울러 국내 주요 금융기관 등과 함께 세계 경제, 금융, 산업, 무역에 관한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도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토록 했다.

그중에서 특기할 만한 두 포럼이 있다. 첫째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특별후원으로 미국의 PIIIE와 공동으로 94년부터 2003년까지 8차에 걸쳐 워싱턴에서



개최됐던 '한·미 21세기 위원회'다. 21세기를 내다보며 미래지향적 한·미 관계를 위해 양국의 전현직 정부 최고위 인사와 의회 지도자, 업계와 언론계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의 장으로 마련한 특별 포럼이다. 미국 측에서는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마이크 캔터 무역대표, 로라 타이슨, 조스티글리츠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대니얼 이노우에, 폴 사이먼, 로버트 트로첼리 상원의원, 켈빈 돌리 하원의원, 폴 울포위츠 미 국방성 부장관, 윈스턴 로드 동아태 차관보 등 현직 정부·의회 최고위 인사 다수가 참여했다.

우리 측에서는 나웅배 국회 외교교통상 위원장과 한승주 외무장관, 이각범 청와대 정책수석 등 현직 고위 인사들과 이흥구 총리, 김영환·현홍주·박진우 전 미 대사 등이 참여했다.

두 번째 특기할 만한 포럼은 '국제 차세대 지도자 포럼'이다. 이 포럼도 한국 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네 차례 개최했다. 21세기를 이어갈 각국 정부와 업계의 차세대 지도자급 인사들이 한데 모여 1주일간 강연을 다질 기회를 갖도록 하는 포럼이다. 이 포럼에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리고 일본과 중국 등 50여 개국 140여 명의 차세대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나는 지금도 이 두 포럼이 중도에서 끝난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93년 출범 이래 첫 20년간 다양한 세계경제연구원 행사에 참여했던 국내외 저명인사만도 600여 명에 달했다. 그중에는 창립 초기부터 명예이사장인 폴 볼커 전 미 연준(Fed) 의장을 비롯해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 A W 클라우센 전 세계은행 총재, 아서 던켈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현 WTO) 사무총장, 도널드 존스톤 OECD 사무총장, 자크 아탈리 전 유럽부흥은행 총재, 하루히코 구로다(전 일본중앙은행 총재)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등 전현직 국제기구 수장들도 포함돼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 석학들과 글로벌 기업인들은 일일이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 참여해 주었다. 그리고 정치·안보·문화·언론 등 비경제 분야의 세계적 지도자들과 석학들도 다녔다. 토머스 폴리 전 미국 하원의장,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앤서니 레이크 대통령 안보 보좌관과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 『역사의 종언』으로 주목받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조지메이슨대 교수,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등도 참여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최소한의 여행·숙박·경비 기준의 IGE 부담으로 초빙된

## 세계경제연구원의 국제포럼 워싱턴서 한·미 21세기 위원회 양국 정부·의회·언론 머리 맞대 국제 차세대 지도자포럼도 열어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오른쪽) 초청 강연회. 아래 사진은 1993년 세계경제연구원(IGE) 현판식에 참석한 사공일 이사장(왼쪽 둘째)과 [중앙포토]

다. 특기할 만한 경우도 많다. IGE 창립 초기부터 세계적 석학 20여 명과 함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하버드대의 마틴 펠드스타인(레이건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역임) 교수의 경우가 한 예다. 펠드스타인 교수가 미국의 어느 금융회사 자문역으로 베이징을 방문하는 계획을 알고 가는 길에 서울에 잠시 들러 IGE 조찬 강연을 부탁한 적이 있다.

IGE 조찬 강연은 보통 오전 7시30분에 시작한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그날 오전 5시30분쯤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잠시 샤워를 하고 행사장이었던 조선호텔까지 8시 강연에 맞춰 도착했다. 강연 후 그날 저녁 베이징의 큰 행사를 위해 서둘러 서울을 떠나야 했다. 모든 경비는 금융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IGE로부터는 일체의 실비보상도 사양했다. 그와 나는 경제수석 사무원 격의 없는 동료·친구로 지내왔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IGE 행사는 언론 매체의 취재를 권장했다. 행사 이후에는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 언론과의 접촉을 IGE가 적극 지원한다.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의 특별강연도 알선한다.

IGE 행사 후에는 즉각 국·영문의 책자를 만들어 정부 관련 부처, 국회 관련 상임위, 국회 도서관, 전국 대학교 도서관과 서점에 보낸다. 전국 군 단위의 도서관에도 배포하고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